

# 광주교대 부설초 급식 인건비 전가 논란

## 급식실 증축공사에 따른 위탁급식 인건비 6만원 부과 학교장 공사 추진 문제점 대비 없이 강행해 논란 자초

광주교육대 부설초등학교가 급식실 증축공사에 따른 위탁급식을 실시하면서 인건비를 학부모에게 떠넘겨 논란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설초등학교가 지난해 12월부터 급식실 증축공사를 하면서 올해 1학기 위탁급식에 따른 인건비를 학생 1명당 6만원씩 부과했다”며 “학교장의 무책임한 급식실 증축공사 추진으로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사태의 책임

은 위탁급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공사를 결정한 학교장에게 있다”며 “학교장은 급식비 정수를 중단하고 공사 추진과 관련한 정보들을 명명백백히 공개한 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자체 지원을 받아 광주지역 초등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에도 기존과 같이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했다.

무상급식 예산에는 식품비와 운임비,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 부설초

등학교에 위탁급식 인건비를 지원할 경우 이중지원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욱이 공사가 지연되면서 2학기에도 위탁급식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학부모들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는 공사기간에 기존 조리원들을 휴직케하라고 하지만 휴직하도록 강제하기 어렵다”며 “고용안정성 문제가 있는 만큼 교육청이 이중지원이라는 기준만 고집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급식실을 증축할 경우 위탁급식 기간 동안 기존 조리원들을 휴직케하면 교육청에서 기존 급여의 70%를 지급한 뒤 위탁급식 비용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도 부설초등학교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안정을 위해 일시적인 휴직을 시행하고 급여의 70%를 지원하는 것이다”며 “부설초등학교가 교육청의 안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결국 학부모들의 피해를 자초했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 광주소방 구조출동 37분마다 한번 꼴

### 상반기 8302건...토요일 많아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올해 상반기 구조·생활안전 출동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45.9건(전년 37.1건)으로 37분마다 한 번 꼴로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총 출동건수는 8302건이며, 구조처리 건수는 지난해보다 1333건(23.5%) 증가한 7014건으로 집계됐다. 동물포획과 교통사고 관련 출동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구조인원은 1722명으로 80명(4.4%) 감소했다.

처리건수는 안전조치 1804건(25.7%), 화재 1208건(17.2%), 동물구조 968건(13.8%), 잠금 잠지 개방 824건(11.8%), 승강기 561건(7.9%), 교통사고 351건(5%) 순으로 시민생활 밀착형 구조활동이 많았다.

요일별 출동은 토요일이 13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목요일(1237건), 금요일(1226건), 일요일(1192건) 순이며, 주5일 근무제에 가족 단위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토요일 출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조대가 가장 많이 출동한 곳은 북구가 2407건으로 가장 많고 광산구(2395건), 서구(1671건), 남구(987건), 동구(841건) 순으로 나타났다. 관할구 면적과 인구수에 비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아파트 2397건(34.2%), 도로 990건(14.1%), 단독주택 612건(8.7%) 순으로 구조처리됐다.

서은홍 기자



영유아재난안전훈련 5일 서울 강북구 영유아 특수학교인 효경학교에서 진행된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에서 담당 교사들이 영유아와 대피하고 있다.

## ‘탕약 택배 배송’ 약사법 위반 한약사 벌금 2000만원

법원이 전화 상담 뒤 택배로 탕약을 배송해 주는가 하면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저장한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상재 판사는 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 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4년 12월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B 씨와 전화상담 뒤 탕약 1개 원판(90포)을 23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택배를 통해 이를 배송해 주

는 등 2015년 5월21일까지 총 85회에 걸쳐 1742만2000원 상당의 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용기한이 경과했거나 제품명·사용기한이 기재되지 않은 한약제 1만2846g을 저장하는 등 약품 등의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관련 법률은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은 사용기한이 지남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지 않아야 하며, 한약 규격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제품명·사용기한을 기재하는 등 한약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박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A 씨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며 벌금형을 선택했다.

주춘정 기자

## 광주 유치원에 경차 돌진...20명 이송

광주의 한 유치원 건물에 차량이 돌진해 운전자와 유치원생 19명이 다쳤다.

5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5분께 광산구 월계동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A(47·여) 씨가 몰던 경차가 돌진했다.

이 사고로 유치원에서 수업 중이던 원생 19명과 차량 운전자 A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친 원생 가운데 4명은 유리파편에 의한 찰과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원생들은 가벼운 열상을 입거나 크게 놀란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이 들이받은 교실은 6세 반으로, 22명이 수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인근 아파트 단지 출입로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임형택 기자

## 빵소니범, 범퍼에 찍힌 번호판 숫자로 달미

추돌 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빵소니범이 사고 피해 차량에 자신의 차량 번호가 찍혀 경찰에 달미를 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추돌 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대상 도주치상 등)로 A(5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유치원 앞 평도 1차선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B(47·여)씨의 차량을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부상을 입히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B씨에게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한 뒤 다시 차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승용차 범퍼에 A씨 차량 번호판 숫자 3개가 찍힌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 끝에 A씨를 검거했다.

## 빌라 4층 옥상서 4살 어린이 추락 사망

인천 계양구의 한 4층 짜리 빌라 옥상에서 4살된 남자 어린이가 1층 화단으로 추락해 있는 것을 잠시 잠을 보고 돌아온 어머니가 발견했다.

5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께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서 A(4)군이 놀던 중 1층 화단으로 떨어졌다.

A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5일 오전 0시20분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어머니 B씨가 잠시 잠을 보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빌라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 15층 아파트서 1층으로 돌 던진 10대 검거

인천 논현경찰서는 5일 고층 아파트에서 돌과 음료수 캔을 던져 자전거 보관대 등의 기물을 파손한 A(13)군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 1일 오후 10시2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돌을 던져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늦은 시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또 A군은 돌을 던진 뒤 지난 2일 오전 0시20분께도 같은 방법으로 음료수 캔 등을 1층으로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검거됐다.

## 가족과 연락 끊긴 4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가족과 열흘 간 연락이 끊겼던 40대 여성이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5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6시께 A(44·여)씨의 어머니 B씨는 딸과 10일 동안 연락이 되지 않자 심중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의 거주지인 오피스텔을 찾아가 강제로 문을 열고 수색을 벌이려던 순간 집 안에 있던 남성이 갑자기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10층짜리 오피스텔 9층에서 뛰어내린 이 남성은 차 보닛 위로 떨어졌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A씨의 동거남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지임대수탁사업
-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농지연금사업
- 농지규모화사업

###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차리(30년, 1~2년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 농지임대수탁사업**  
자력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 이후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존,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